

서부발전 기술혁신·환경경영으로 기후 위기 극복

한국서부발전(사장 김병숙)은 발전 분야에 혁신기술을 도입하고, 환경설비를 개선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등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특히 차별화된 기술 역량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친환경발전소를 구축, 환경경영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서부발전은 태안·평택·서인천·군산 등 4개 발전단지에 총 1만2천 342MW 용량의 발전설비를 운영하고 있고, 이는 국내 발전설비 용량의 약 9%에 해당한다. 주로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다.

서부발전은 2016년부터 발전소의 운영 패러다임을 친환경 중심으로 전면 전환해 환경설비를 보강해왔다. 우수한 환경 기술을 도입해 증장기 미세먼지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대기오염물질을 2015년 대비 80%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석탄 화력의 경우 2016년부터 3년간 탈황·탈질·집진 설비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환경설비를 집중적으로 설치했다. 획기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발전사 최초로 우수 환경기술인 '사이클론 탈황설비'를 태안 1~4호기에 도입했다. 오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태안 5~8호기에 최신 환경 기술을 접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국내 최저 수준으로 줄일 예정이다.

서부발전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LNG 복합, 중유화력 등 모든 발

전소로 확대해 2019년에는 군산 LNG 복합 2기에 최신 고효율 탈질 설비를 설치했다.

그 결과 발전소 운영 과정에서 2015년 약 4만t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던 서부발전은 2019년 1만2천만t으로 약 70%를 감축했다. 4년간 매년 국내 발전사 중 가장 큰 감축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는 전기 1KWh 당 배출된 대기오염물질량(g)인 배출원단위(g/kWh)를 기준으로 할 때 2015년 0.848g/kWh에서 2019년 0.267g/kWh로 약 68.5% 개선한 것이다. 배출원단위는 낮을수록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다는 의미다. 2020년도 3분기 기준 배출원단위는 0.195g/kWh로 2015년 대비 77% 개선하면서, 올해 역시 5년 연속 발전사 중 최대 감축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부발전은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환경 기술을 도입해 미세먼지 감축에 차별화된 성과를 내고 있다. 이에 힘입어 김병숙 서부발전 사장은 최근 '2020 대한민국 CEO 명예의 전당' 환경경영 부문에서 3년 연속 우수 CEO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김병숙 사장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지속해서 혁신적인 환경 기술을 도입해 대기오염물질은 물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친환경에너지 공급을 위해 과감한 투자와 선제적 기술개발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



태안발전본부 전경

맑고 깨끗한 우리 땅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서부발전의 <신재생로드맵 3025> 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한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행복에너지  한국서부발전(주)

